한국학 제43권 제4호 통권 161호 285-309쪽
doi: 10.25024/ksp.43.4.202012.285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그 약자의 형상

조홍윤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구비문학 전공
hongyoun.cho@istanbul.edu.tr

Ⅰ. 머리말
Ⅱ. 터키 참전용사들의 기억 속 한국인의 형상
Ⅲ. 참전의 기억 속 한국인, 그 약자 형상의 함의
Ⅳ. 맺음말

이 연구는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AKS-2018-INC-2230009)으로 수행되었음.

www.kci.go.kr

Ⅰ. 머리말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가 서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아시아 대륙의 끝과 끝, 동서로 8,000km의 거리를 둔 두 나라가 서로를 형제로 부르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알타이 지역에 기원을 둔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대의 연맹 관계로 한국과 터키의 친연성을 소급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양국이 실질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게 된 직접 계기로는 1950년의 한국전쟁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파병국[1] 중 하나인 터키는 한국을 '칸 카르데심(Kan kardeşim)'으로 지칭하곤 한다. 직역하면 '나의 피의 형제'라는 뜻으로 이는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형제'를 의미하며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여겨진다. 이는 터키 일반의 한국 인식 형성에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한국 경험과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터키와 한국의 우호에 중대한 교량 역할을 해온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기억을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통하여 터키의 대한(對韓) 인식을 실체적으로 구명하고자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

---

1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 결정을 UN안보리에 통보하였으며, 1950년 8월 1차 파병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090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sinda Türk Ordusu*(Istanbul: Yeditepe Yay ı nevi, 2017), pp. 7-87.

2 터키 내에는 현재 약 2,000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생존한 상황이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다. 이에 터키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조사 연구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8년 여름부터 연구자 개인 차원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및 외교부 등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후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지원이 좌절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최근에는 COVID-19사태로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부침이 있어 아직

www.kci.go.kr

구술생애담은 “한 인간이 일생동안 경험했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으로 소환하여 나름의 규칙을 토대로 구성한 서사체”[3]로서 체험에 대한 구연자의 현재적 인식을 전(全)의식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 형식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의해 구연되는 구술생애담에는 한국전쟁사의 거시적 연결고리가 지닌 빈틈을 매워낼 미시사적 진실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구연자의 총체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이에 그것을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터키인들이 그 내면에 지닌 한국의 형상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터키 참전용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터키는 옛 이웃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가 투트크(Turk)

광범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고령인 참전용사들의 구연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연구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구술자료 수집은 본고에 인용한 몇 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만을 탓하며 주저앉기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짧게나마 현재까지 내딛은 걸음을 돌아보며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집중적인 조사 연구의 수행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구술생애담 조사는 본 연구자의 터키어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터키 현지의 교민 및 탁월한 한국어 능력을 지닌 터키인 연구팀원들과 함께 현장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술조사의 진행 역할을 맡은 연구팀원이 구술의 흐름을 끊지 않고 적절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설정해 놓은 구술기록지를 통해 인터뷰 항목을 숙지하고 구술조사 진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상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술자료 전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원활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온전한 형태의 구술생애담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와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홍윤,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보훈(報勳)을 넘어 소통(疏通)의 이야기로」, 『한국고전연구』 제44집(2019), 99-127쪽을 참고 바란다.

3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2013), 173쪽.

www.kci.go.kr

민족의 대이동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길을 경유하였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양자가 다시 조우한 곳은 1951년의 한국이라는 전쟁의 시공간이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조우한 낯선 형제에 대한 기억, 전쟁이 지닌 울림만큼이나 강렬한 한국인의 형상이 터키 참전용사들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던 순간이다. 터키인들이 한국인을 '피의 형제'로 지칭하며 다소 무조건적인 호의를 보내게 된 것은, 그처럼 강렬한 울림을 지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기억이 그들의 주변으로 파급되어 이제는 터키 일반의 한국 인식으로 굳어지게 된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와 같이 강렬한 형상으로 남은 한국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주목할 만한 점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에서 생생하게 구연되는 한국인의 모습들 대부분이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모습', '길가에 주저앉은 노인의 모습',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 등, 전형적인 약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험에 대한 구술이 사실의 기억들을 구연자 나름의 의미를 지닌 서사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유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4] 따라서 구술생애담 연구에 있어서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뚜렷한 형상으로 구연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야 말로 구연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사유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다.[5] 그러므로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대부분에게 거의 일관된 형상으로 남아 있는 약자로서의 한국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전쟁을 의미화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핵심이

4 한정훈(2013), 위의 논문, 169-208쪽.

5 구연자의 구술 자료를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여기는 구술사 연구의 경향과 비교하였을 때, 구술 자료를 일종의 이야기 문학으로 여기고 그 서사적 형상화의 맥락을 구명하는 것이야말로 구술생애담 연구의 특장이라 할 수 있다. 경험내용의 사실성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 진실성, 그로부터 드러나는 인식의 지형을 중시하는 맥락이다.

www.kci.go.kr

될 수 있음은 물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터키 일반에 전파되었던 한국 인식의 기반을 조명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 자료에 나타난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을 확인하고 한국전쟁 경험을 통해 그러한 형상을 주조한 터키 참전용사들의 한국 인식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일찍이 이루어진 바 없는 방향의 연구로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로부터 터키 일반으로 파급된 한국 인식 기반의 단면을 조명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Ⅱ. 터키 참전용사들의 기억 속 한국인의 형상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당시 경험에 대한 구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투 당시에 선보인 자신들의 용맹'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난길에 버려진 아이들, 난리 중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여인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노인의 모습들'에 대한 것이다.

그 중 전투 당시의 경험을 구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터키군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강조하면서 구연자 스스로 느꼈을 두려움과 같은 내면적 갈등의 경험들은 구연에서 제외된다. 주로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만 구술되는 경향이 있다.[6] 참전 경험을 지닌 남성 구연자들의 생애담 구연에 있어서 스스로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은 매우 일반적이다.[7] 터키 참전용사들의

6 조홍윤(2019), 앞의 논문, 115-116쪽.

7 신동흔,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우리 안의 분단을

www.kci.go.kr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오랜 역사를 통해 투쟁의 삶을 살았던 투르크 민족 특유의 남성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8]

참전 당시에 대한 구술에서 주를 이루는 나머지 한 축, '고아와 여성, 노인들을 만난 에피소드', 즉 '약자들과의 조우'에 관한 사연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아와 여성, 노인만이 구연자가 만난 한국인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구연자에 따라서는 위문 공연에 초대되어 온 한국인 가수나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연락병으로 부대에 드나들던 한국인 병사와 나눈 우정에 대해 구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연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지 않으며 상당히 특수한 구연사례에 해당한다. 아마도 한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고, 독립 부대로서 주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였던 상황, 전시의 군인으로서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제한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구연자들은 확실한 교류선이 있었던 앙카라 학교의 전쟁고아들에 대하여 더 많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행군 중에 숱하게 조우하였던 한국인들을 통해 상당히 간접적이고 피상적

사진- 피난민을 만난 터키군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집(2012), 277-312쪽.

8 이와 같은 구술 경향은 전쟁 당시 참전용사 개인이 느꼈을 내면적 문제들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한다. 향후의 조사를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양질의 구술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인 한국인 형상을 형성하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조우하였던 전쟁고아,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는 피난민 행렬, 난리 통에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들의 모습,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행색의 노인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그들에게 느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한다.[9] 이와 같은 경향이 터키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에 공통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이 그들의 집단 표상으로서 함의하는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리라 짐작된다. 이에 본장에서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철저한 약자로서의 형상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1. 완전한 절망 속 노인의 형상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10]의 구술에 등장하는 전형적 한국인 형상, 그 첫째는 '완전한 절망 속에 놓여 있는 노인의 형상'이다. 터키 참전용사들은 그들이 이동했던 곳 어디서나,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날 때마다, 피로에 지쳐 길가에 주저앉은 피난 행렬과 조우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노인의 모습들을 발견하였다.

> 군우리의 전투가 끝나고 며칠 후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집들이 거의 무너져 있고 사람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 '다 피난을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집을 보았는데, 열린 대문 안으로 반쯤 무너진 집이 보이고 그 집의 작은

9 조홍윤(2019), 앞의 논문, 117쪽 참조.

10 이후로는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구연자'로 지칭한다.

www.kci.go.kr

발코니에(마루를 말하는 듯하다.) 늙은 남자 한 명이 앉아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살기 위해 모두 떠나버린 곳에 혼자 힘없이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11]

논길을 따라 행군을 하다가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모두 다 여러가지 큰 짐을 가지고 있는 피난민 무리로 보였는데,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많이 지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이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터키 군을 처음 본 모양인지 낯선 군인들이 지나가니까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을 보면 꼭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올라요.[12]

위의 구연에서 볼 수 있듯, '완전히 넋이 나가서' 주변의 소란스러운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노파, 폐허가 된 마을 속에 우두커니 홀로 앉아 있는 '죽은 사람 같은' 노인의 모습이 구연자들의 기억 속에 강렬한 형상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형상은 전쟁의 극한 상황을 감당해낼 힘도 의지도 없이 그저 그 순간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인 완전한 무력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는 곧 전쟁의 당사자였으면서도 스스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무력한 당대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형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구연자들이 유독 그와 같은 노인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형상이 곧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한국의 모습 그대로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11 Mehmet Akif Ersoy(남, 1929), 2019.3.5. 13:00–14:30, Küçükçekmece, 조홍윤, Yasemen Özgün.

12 Kemal Alkan(남, 1931), 2019.11.8. 17:00–18:20, Şişily, 조홍윤, Zeynep Gündüz.

www.kci.go.kr

2.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형상

구연자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또 한 부류의 한국인 형상은 가련한 여인의 형상이다. 삶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그녀들. 그러한 여인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 한국은 그때 전쟁 중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터키 군인들을 찾아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가곤 했어요. 저는 일부러 먹지 않고 남겨둔 모든 것들을 그녀들에게 주었어요.[13]

> 어느 날인가는 작은 도시의 시장에 갔었는데 구두를 닦고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에게 구두를 맡기고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사실 교사였어요.
>
>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
>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
>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
> 라고, 그때 저는 한국인의 애국심에 정말 크게 감동했어요.[14]

위에서 나타나듯, 구연자들의 구술 과정에는 전쟁 상황이라는 절망적 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나아가서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

13 Mahmut Aka(남, 1931), 2018.7.20. 15:00-17:10,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14 Mahmut Aka(남, 1931), 2018.7.20. 15:00-17:10,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www.kci.go.kr

미력하나마 생의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구두닦이로 연명하는 모습, 그와 같은 여인들의 모습은 얼핏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구연자들은 여인들의 그러한 고군분투를 비루한 연명행위로 치부하지 않는다. 전쟁 속의 여인, 압도적인 폭력 앞에 놓인 철저한 객체인 그녀들이지만 그에 절망하기보다는 삶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위해 작지만 비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구연자들은 그녀들이 내민 손길에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그 비참한 모습 속에 감춰진 찬란한 생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에 동조한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 두었다가 그녀들에게 건네기도 하고, 폐허가 된 땅, 일상화된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서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여인의 모습에 감동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인의 형상과 그것을 목격한 감동은 구연자들의 내면에 아로새겨져 거듭 재생산된다.

> [조사자: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나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만난 구두닦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분의 직업은 교사였는데 시장에 나와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
> "나라를 위해 한다."
>
> 라고 했던 이야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15]

위에서 알 수 있듯, 구연자들이 목격한 여인들의 고군분투는 잊히지

15 Salih Aka(남, 1974), 2018.7.20. 17:10-17:45,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www.kci.go.kr

않는 감동의 형상으로 남아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여인의 형상 또한 터키 참전용사들이 몸소 경험한 한국의 일면을 비추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전쟁 당시의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극복해내기 어려운 철저한 무력자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식이 완전한 절망 속에 주저앉은 노인의 형상으로 투영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중에도 미력한 힘이나마 전쟁을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민중의 노력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연자들은 목격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응집되어 구연자들의 내면에 새겨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형상

구연자들의 구술을 통해 그려지는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아의 형상'이다. 많은 구연자들이 전쟁 중에 조우한 전쟁고아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류 경험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밝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의 한국 경험 중 가장 큰 정서적 영향력을 지닌 것이 바로 그 전쟁고아, 젊은 날의 그들이 사랑했던 한국 아이들에 관한 에피소드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터키에서 제작·개봉되어 전국적인 흥행을 기록했고, 2018년에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던 영화 〈Ayla〉(Can Ulkay, 2017)는 바로 그와 같은 전쟁고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 스토리의 기반이 된 것은 실제 전쟁고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한국전쟁 참전용사 슐레이만 하사(Süleyman

www.kci.go.kr

Dilbirliği)의 이야기였다. 우연히 부모 잃은 한국인 아이를 보호하게 되면서 'Ayla(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을 주었던 그는 귀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한국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다. 슐레이만은 이후로 평생 동안 아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일라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터키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던 터키 한인 사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2019년 1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사업회(Türk Kore savaş ı Gaziler ı Amma organizasyonu 5053, 약칭 TKGA5053)'가 결성되었고, 그 첫 번째 방문 조사 대상자였던 슐레이만 하사는 당시 전쟁 고아였던 아일라(김은자)를 만나 함께했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다시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해왔다.[16] 이내 그 곡진한 사연이 한국에 전해져 〈코레 아일라(Kore Ayla)〉(2010, 춘천 MBC)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다시 영화로 제작되어 세상에 알려지기에 이른 것이다.

슐레이만 하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많은 구연자들이 자신들이 만나고 교류하였던 전쟁고아들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

16 당시 촬영된 영상과 음원은 망실된 상태이지만 조사자 박남희의 노트에 구술 내용이 기록된 바, 이를 인용한다. "1950년 군우리 전투가 끝나고 후퇴하는 길이었다. 추운 겨울인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다섯 살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아이도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다. 부모가 없는 것 같았고, 그대로 두면 끔찍한 일이 생길까 봐 부대로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다. 아이에게 Ayla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이는 나를 바바(baba, 아빠)라고 불렀다. 나는 물론 부대원 모두가 아이를 사랑했다. 그 후 후속 파병 부대와 교대하게 되어 터키로 돌아왔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앙카라 학교에 보내졌다. 그동안 너무 정이 들어 헤어지는 것이 어려웠다. 지금까지 Ayla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찾을 수만 있다면 꼭 찾고 싶다." Süleyman Dilbirliği(남, 1923), 2009.1.21. 시간 미상, Üsküdar, 박남희, 허경욱, 조규백, 오수용, 이주연

www.kci.go.kr

숲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홉 살 된 남자 아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내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자신을 구해줄 것을 알았는지 내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끌어안았지요.[17]

산에 있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옆에 가족이 없는 몇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것 같아 그 아이들을 수원에 있는 앙카라 학교에 데려갔지요.

[조사자: 다른 참전용사 분들도 앙카라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선생님께서도 앙카라 학교에 자주 찾아가서 봉사를 하셨나요?] 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사령관이 부대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보급 받은 것 중에 남겨 놓은 껌이나 초콜릿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들을 모아서 다 함께 그곳에 가져가곤 했어요. 그곳의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반겼어요.

[조사자: 그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껌이나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을 먹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가져다 줬지요. 아이들은 우리가 방문하면 흥분해서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터키어로

"아빠가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

라고 소리쳤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사자: 귀국하실 때에는 아이들이 걱정 되셨겠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뻤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슬프기도 했어요. 배에 올라서도 아이들과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걱정했어요.[18]

---

17 Saçit Gürünlü(남, 1926), 2018.12.7. 16:00-17:40, Zeytinburunu, 조홍윤, Yasemen Özgün.

18 Mahmut Aka(남, 1931), 2018.7.20. 15:00-17:10,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www.kci.go.kr

전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 터키군은 여단 직속으로 수원에 앙카라 학교(Türk Ankara Suvan Okulu)를 설립하였고, 이곳에서 200여 명의 전쟁고아를 보호하였다. 위 구연에서 알 수 있듯, 터키 여단의 장병들은 수시로 앙카라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위문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와 같은 시간들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구연자들은 자기 몫으로 배급 받은 초콜릿이나 껌을 아껴 두었고, 아이들은 그런 구연자들을 '터키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구연자들의 기억에서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전쟁고아들의 형상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절대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폭력 앞에서 보호자를 잃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와 같은 절대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구연자들은 그들의 참전이 정당한 일임을 확인 받고, '폭력의 투사'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자신들의 전투 행위를 궁극적인 순수 선의 구현으로써 긍정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이에 구연자들은 수시로 아이들을 찾아가 교류함으로써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문하는 동시에, 자신의 싸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가혹한 전투 속에서 상처 입은 스스로의 영혼을 치유하였던 것이리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 모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들이 만난 전쟁고아들의 형상을 끊임없이 재소환하고 사유함으로써, 그들의 청춘을 바친 전쟁이 순수 선의 구현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Ⅲ. 참전의 기억 속 한국인, 그 약자 형상의 함의

구술생애담을 통한 의미 구현의 메커니즘에 관하여 한정훈은 "한 개인의 파편화 된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일정한 의미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술생애담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간다. 구술생애담 속에는 개인의 파편화되고 분절된 경험과 기억이 잇대어지면서 일관적 의미를 형성해 간다. 이러한 의미 형성의 문제는 주체가 복원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19]

이는 구술 주체가 경험한 '사실'들이, 구술 주체가 부여한 일정한 의미 맥락을 따라 새로운 질서를 부여 받고 재정립됨으로써 구술자가 '주체로서의 자기'를 복원하는 데 종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호명되고 배열되는 경험의 형상이다. 전후의 서사적 맥락을 지닌 이미지의 형태로서 인간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때때로 호명되어 복원되는 경험의 형상들은, 경험 당시부터 경험 주체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부여 받은 것들이며, 이후의 삶을 통하여도 끝없이 반추 되며 경험 주체의 행위와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 경험을 공유한 구연자들의 구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형상들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의미화한 내용들을 그 안에 함의한 집단 경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전쟁을 경험한 터키 참전용사들의 구술을 통해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한국인의 형상을 살펴본 바, '완전한 절망 속 노인의 형상',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형상',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형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형상들이야말로

19 한정훈(2013), 앞의 논문, 175-176쪽.

www.kci.go.kr

구연자들의 한국인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응집한 것이며, 곧 그들이 한국과 한국전쟁을 사유하고 의미화하는 인식적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전쟁에 대한 구술에 있어서 구연자들을 통해 형상화되는 한국인은 위의 세 가지 양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20] 그렇다면 '노인', '여인', '고아'라는 약자의 형상이 구술을 통한 구연자들의 주체 복원 과정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형상은 공통적으로 구연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자'로서의 주체로 의미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넋을 잃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연명하고 있는 노인의 형상들이 구연자들에게 발견되고 사유됨으로써, 구연자들은 그와 같이 완전하게 무력한 존재의 생존을 위해 전쟁에 임하는 구원자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미력한 힘이나마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 그 또한 구원자적 주체로서의 일면이다. 가족을 잃고 전쟁의 한복판에 버려진 고아들의 형상, 그들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구연자들의 모습 또한 절대적 약자의 생명과 삶을 수호하는 구원자적 주체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실상 한국전쟁은 길고 긴 투르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전쟁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자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타국을 돕기 위해 나섰던 최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전의 숱한 전쟁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명분이 분명함에도 한편으로는 침략자이자 정복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야 했다면, 한국전쟁에의 참전은 그야말로 '순수 선의 구현'으로서 그들

20 직접적인 전투의 경험을 구술할 때에는 이와 다른 한국인 병사의 모습이 구연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한국인 병사의 역할은 단순 조력자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구술될 뿐이며, 주로 등장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위와 같은 약자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www.kci.go.kr

역사의 획기적인 전기로 인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21] 실상 당시에 한국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 정부의 입장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것이었음이 분명하다.[22] 그러나 참전한 병사들 개개인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황 아래 끊임없이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을 경험하고 사유함으로써 구원자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터키 참전용사들에 의해 한국전쟁을 인지하게 된 터키 사회 일반이 기억하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선의 역사'로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터키 군인에 의해 보호받은 전쟁고아의 형상은 그와 같은 '선의 구현자', '구원자'로서의 주체 복원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 하는 한국인 형상이었다. 터키 제2여단 정보 장교였던 Nazım Dündar 대위가 자신이 만난 한국 아이들에 대해 회고한 다음의 내용에 그와 같은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 교장선생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어린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하며 갑자기 뛰어와 내 다리를 끌어안고는 힘껏 소리쳤다. 나는 놀라 아이를 보고 내 주변을 보았다. 어느새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나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당신을 알아요!", "맞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그 사람이에요!"라는 말이라고 했다. (…) 학교에서 병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끔찍한 전쟁의 기억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날의 따듯한 느낌이 나를 무척

21 조홍윤(2013), 앞의 논문, 114쪽.

22 실제로 당시 터키의 참전 결정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터키의 NATO가입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사실은 당대에 참전 병사들이나 터키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Necmettin Özçelik, op.cit, p. 17; Ali Denizli 저,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33-34쪽.

www.kci.go.kr

감동시켰던 것이다. 아이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다. 내 눈앞에는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도무지 잊을 수 없다.[23]

앙카라 학교를 방문했던 그는 자신에게 뛰어와 안기며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외쳤던 아이들, 구원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 주었던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그 끔찍한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구한 전쟁고아 아이의 형상을 통해 한국전쟁을 사유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은 완전한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순수의 존재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된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형상은 그가 순수 선의 구현자로서 주체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자기 서사적 기반이자[24] 인식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로 하여금 구원자적 주체로서의 자기상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아이들의 형상은, 다시 터키 일반의 한국 형상으로서 전유되었다. 전쟁 중 터키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정부 주도로 발행된 기념우표에는 전쟁고아를 무등 태운 채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병사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터키 대중 또한 그와 같은 이미지를 향유함으로써 구원자적 터키의 이미지를 내면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터키인들이 특별히 한국을 향하여 '피의 형제'라 지칭하며 특별한 우호의식을 보여주게 된 계기는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형상,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이 터키 일반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순수한 어린 아이의 형상이 거리낌 없는 호의를 불러일으킴은

---

23 Ali Denizli 저, 이선미 역(2014), 위의 책, 134-135쪽.

24 여기서 '자기 서사적 기반'은 주체가 스스로의 기억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를 서사적으로 재배열하여 복원하는 의미화 과정에서 핵심 플롯(plot)을 이루는 형상을 뜻한다.

www.kci.go.kr

물론, 터키 참전용사들을, 나아가 터키라는 나라 자체를 구원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고착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한국 형상의 전유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영화 〈아일라〉의 사례를 다시 거론하자면, 한국에 대한 터키 일반의 우호 인식 재고에 이 영화의 영향은 지대했다. 최근의 한류 열풍에 의한 우호의식 강화가 청년 계층에 한정적인 경향이라면, 〈아일라〉의 영향은 세대를 막론한 것이었다. 영화를 본 터키인들은 우연히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아일라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영화 속의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애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이별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더하여 슐레이만과 아일라가 만났던 바로 그 한국전쟁을 통해 연결된 터키와 한국의 관계 또한 그들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며, 그들이 60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있는 한국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그들과 분리될 수 없는 지체(肢體)임을 역설하곤 한다. 이에 터키에서는 이 영화의 개봉이야말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은 터·한 교류사의 일대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아일라'와 같은 전쟁고아의 형상, 약자로서의 한국 형상이 터키인의 한국 인식 기반에 여전히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25 실제로 영화 〈아일라〉는 터키의 대흥행이 무색할 만큼 한국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아일라〉에 그려진 한국인 전쟁고아와 터키군 보호자의 형상이 터키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함을 시사한다.

www.kci.go.kr

Ⅳ. 맺음말

지금까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에 대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형상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적인 경향으로 구연자들의 구술에 나타난 '완전한 절망 속 노인의 형상',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형상',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형상' 등은, 각각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한국 경험이 구술의 과정을 통해 복원되며 전형적인 약자로서의 한국인 이미지로 응결된 것이었다. 이는 전쟁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던, 완전한 약자로서 구원의 손길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구연자들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노인', '여인', '고아'와 같은 약자의 형상들을 통하여 그들의 한국 경험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의 형상들을 통한 한국 경험의 사유, 그것의 서사화는 구연자들이 스스로를 구원자적 주체로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전쟁에의 참여를 폭력의 투사가 아닌 구원의 행보로 의미화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정체를 긍정할 수 있는 인식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인식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은 곧 한국에 대한 터키의 우호의식을 견인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자신을 구원자, 순수 선의 구현자라는 긍정적 주체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거듭 전파함으로써 터키 일반에 공유된 한국인 형상이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터키 일반의 우호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으리라 본다.

www.kci.go.kr

실제로 구술 조사를 위해 구연자들을 만날 때마다, 본 연구자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구연자들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힘든 일은 없는지, 식사는 잘하고 다니는지를 거듭 묻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으니 꼭 같이 식사를 하자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현재의 한국은 전쟁의 질곡을 벗어나 커다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적 위상에 있어서도 그들이 경험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그 노인의 형상, 여인의 형상, 전쟁고아의 형상이 강하게 새겨져 있어 그 형상들을 본 연구자에게, 현재의 한국에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1차 자료

Kemal Alkan(남, 1931), 2019.11.8. 17:00-18:20, Şişily, 조홍윤, Zeynep Gündüz.

Mahmut Aka(남, 1931), 2018.7.20. 15:00-17:10,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Mehmet Akif(남, 1929), 2019.3.5. 13:00-14:30, Küçükçekmece, 조홍윤, Yasemen Özgün.

Salih Aka(남, 1974), 2018.7.20. 17:10-17:45, Fatih, 조홍윤, 박용덕, Zeynep Küçük.

Saçit Gürünlü(남, 1926), 2018.12.7. 16:00-17:40, Zeytinburunu, 조홍윤, Yasemen Özgün.

Süleyman Dilbirliği(남, 1923), 2009.1.21. 시간 미상, Üsküdar, 박남희, 허경욱, 조규백, 오수용, 이주연.

2. 단행본

Ali Denizli 저, 이선미 역,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Donald E. Polkinghorne 저, 강현석 외 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Necmettin Özçelik, *Mehmetcik Korede: Kore Savasinda Türk Ordusu*. Istanbul: Yeditepe Yayinevi, 2017.

3. 논문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2009, 279-300쪽.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2008, 89-116쪽.

_____,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2009, 177-207쪽.

나승만, 「민중 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 제9권, 1999, 191-204쪽.

신동흔, 「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 우리 안의 분단을

www.kci.go.kr

넘어서기 위하여」. 『국문학연구』 제26집, 2012, 277-312쪽.
조홍윤, 「자기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를 활용한 구술 생애담 서사 분석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48집, 2018, 301-330쪽.
_____,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보훈(報勳)을 넘어 소통(疏通)의 이야기로」. 『한국고전연구』 제44집, 2019, 99-127쪽.
조희진,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재현'의 양상과 기제: 옛 역촌에 거주하는 반가 출신 여성의 경험과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6집, 2011, 185-221쪽.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2013, 169-208쪽.
_____,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무명의 한 여성 판소리 창자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7집, 2015, 347-383쪽.

www.kci.go.kr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터키 참전용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터키인들이 한국인을 '피의 형제(Kan kardeşim)'로 지칭하며 다소 무조건적인 호의를 보내게 된 것은, 강렬한 울림을 지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기억이 그들의 주변으로 파급되어 이제는 터키 일반의 한국인식으로 굳어지게 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구술생애담에서 생생하게 구연되는 한국인의 모습들 대부분이 '완전한 절망 속 노인의 형상',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인의 형상',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형상' 등, 전형적인 약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그와 같은 한국인 형상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그 결과 구연자들의 구술에 나타난 약자로서의 한국인 형상이 구연자들은 물론 터키 일반에 이르기까지 구원자로서의 주체 정립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한국에 대한 우호의식을 견인하는 하나의 인식 기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로부터 터키 일반으로 파급된 한국 인식 기반의 한 단면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구술생애담 분석을 통한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0. 9. 22.
심사일 2020. 10. 27.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터키(Turkey), 한국전쟁(Korean War), 참전용사(Veterans), 구술생애담(Oral Life Narrative), 약자(the Weak), 구원자(Savior)

www.kci.go.kr

Abstracts

A Study on the Image of Koreans as the Weak in the Oral Life Narratives of Turkish Korean War Veterans

Cho, Hongyoun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Image of the Koreans located inside the Turkish veterans By analyzing the materials which collected through "The Field Research on Oral Life Narratives of Turkish Korean War veterans" conducted by this researcher. Basically, the Turks refer to Koreans as “blood brothers” and send some unconditional favors, which is the context in which the memori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spread to their surroundings, and now become the general perception of Turkey. It is noteworthy that most of the images of Koreans vividly narrated in the oral life stories of Turkish Korean war veterans are appear as a typical Images of the weak such as an old man in complete despair, a woman struggling for life, and a child who has lost a parent. Therefore, I analyzed what such Korean images implies. As a result, I found out that the images in the oral narratives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a subject as a savior, not only for the performers but also in general Turkey, and that it became a foundation of recognition that led to a sense of friendship for Korea. In this wa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a new attempt to analyze oral life stories has revealed an aspect of the perception about Korea that has spread from veterans of the Korean War to Turkey in general.

www.kci.go.kr

www.kci.go.kr